오월 진상규명이 국민을 하나로 묶는다

사진=나명주·김진수 기자 mjna@kwangju.co.kr

다시 '오월'이다.

광주의 하늘은 총소리와 비명으로 가득찼고 땅에는 붉은 피가 흘러 내렸지만 모두가 하나의 '대동세상'을 만들었던 1980년 5월을 넘어 마흔두 번째 '오월'을 맞이했다.

영욕의 세월을 거쳐 민주화로 완성된 '5·18'은 새로운 과제를 요구받고 있다. 5·18을 겪지 않은 미래세대에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은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미래세대에 전하는 오월 정신은 그날의 완벽한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5·18의 완벽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오월 정신은 미래세대에 이어져 온 국민의 화합과 통합의 장을 이룰 것이다. 〈편집자 주〉

윤 대통령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도청 앞 헌화 18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의 5·18민중항쟁알림탑에서 광주시민가드너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원통하다 17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서울서도 만세삼창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서울행사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총출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오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배객 발길 제42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전국 각지에서 온 참배객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둘러보고 있다.

'다시 오월' 공연 17일 오후 금남로에서 진행된 전야제에서 '다시 오월'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